

투데이 칼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안전점검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정보를 전파하고 주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예측불허 현장의 불안정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화재 발생 시 유해 물질 파악과 주의사항을 알려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있다. 바로 '현장안전점검관'이다.



윤승호 무진장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소방위

현장안전점검관은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존재하였으나 비상실 및 현장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약하여 2020년 1월 소방청 훈령으로 제정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상설 조직으로 재정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2017~19년) 소방청이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통계에 의하면 총 3,519건, 일일 평균 3.2건이 발생되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3년간 120건, 일일 평균 0.1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고율을 가지고 있지만, 2020년 2월 17일 남원 사매 2터널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듯이 미래에도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에서는 부족한 인력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 최우선'을 목표로 각 팀당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화재대응능력 2급, 응급구조사, 위험물 기능장, 소방설비기사 등 다수의 자격과 현장활동에 경험이 많은 자로 각 팀별 1명씩 총 3명의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현장안전점검관의 임무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측, 보고, 전파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재발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과 각별한 소통이 중요하며 지휘관의 전략 전술에 발맞춰 최선의 안전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난현장에서의 소방대원의 안전 사고 방지는 소방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이것을 간파하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안전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진장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은 2020년 전라북도 도정 성과 과제이기도 한 '소방현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현장 소방 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 사례 등을 연구 및 관련 지식을 교육하며, 재난 현장에서는 현장대원이 활동하기 전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 또는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담당 관내(장수, 무주, 진안)를 넘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방대원의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설

코로나 극복하려면 순종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이 심각하다. 미국은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오만할 정도로 큰소리를 쳤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뉴욕시의 코로나 참궐 때문에 풀이 많이 죽었다. 최근 들어서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다. 사망자가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오리라고 말하면서 자국민들에게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날이다. 신규 확진 환자가 하루 밤새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자도 하루 밤새 너댓 명씩 늘고 있다.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병원과 요양원들이 격정된다. 사망자들 태반이 60대 이상이니 일반 노인들도 보통 이상의 경계심을 보여야겠다. 이런 때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종교 생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국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꽃구경 같은 볼거리도 내년으로 미루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잘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하고 있다. 도내에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6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그것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 상당수는 완치된 상태이기에 며칠 전에 확진 환자로 드러난 이들에만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전북은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당국의 요구에 역행하는 이들이 일부 있는 것이다.

격리 대상자들 중 일부가 궤를 부러 일탈 행위를 하고 있으니 패쇄하다. 그들은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개인주의에 바탕한 제멋대로의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 극복에는 순종이 큰 힘을 발휘한다. 코로나 19를 기필코 극복하려면 제발이지 당국의 요구대로 처신해야만 한다.

발전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지금 지역 발전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도내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거리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 19와 총선 때문에 주요 현안이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언제 쯤이나 제대로 추진될 것 인지 답답한 나날이다.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경황이 없는 때이지만 그래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 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이 요원하다. 이같은 요구는 그 이 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잘 안풀렸을 때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했었던 까닭이다. 다시 강조해 말 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시민이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부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얼마 전 서울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요구한 그대로이다.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저번에 말했던 대로 전기자동차를 군산형 일자리로 선택해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생산 라인 구축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지역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다들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뉴욕은 의료진을 지지합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록클린 병원 밖 교통 관제 박스에 "뉴욕은 의사와 간호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종이가 붙은 가운데 브루클린 병원의 한 의료 종사자가 출근하면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는 5일 기준 12만2031명(832 ↑), 사망자는 4159명(594 ↑)으로 집계됐다.

어려운 이웃 위해 식품 저장고 만든 美 9세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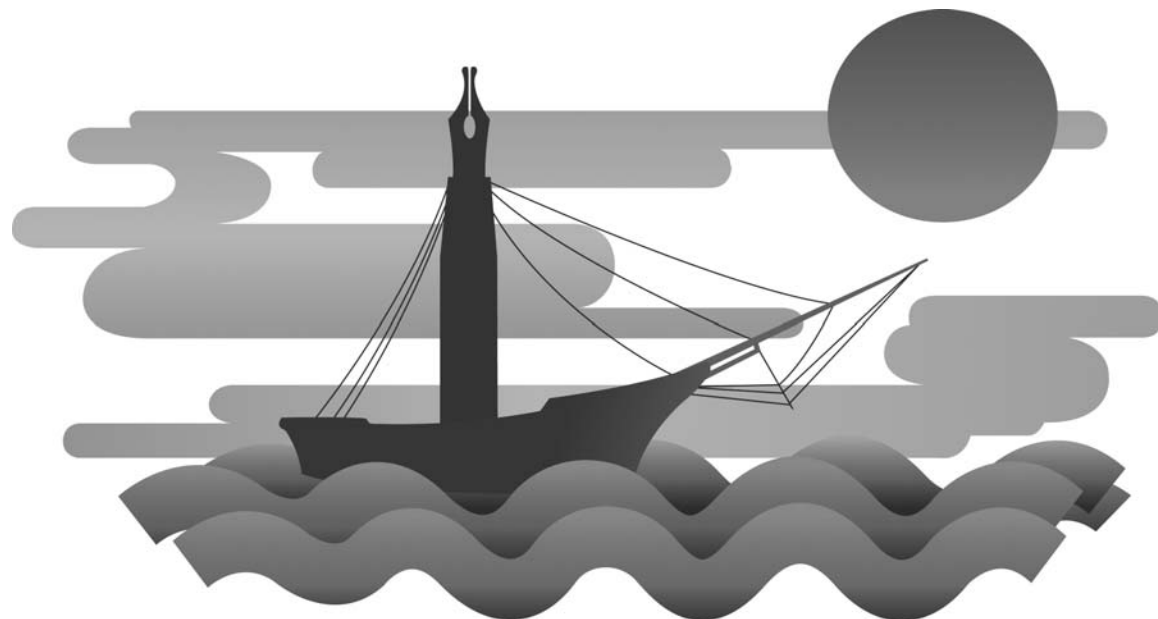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리빈 마을에서 엘리자 카자레스(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만든 음식 저장고에 내용물을 채우고 있다. 엘리자는 목공예기인 아버지와 오빠들의 도움으로 재활용 목재, 번호판 등을 이용해 이 저장고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